

# 16~17세 접종 사전예약돌입 교육부 “예약률 비공개 검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강요와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 18일부터 화이자 접종...초6~중3 18일부터 사전예약 “접종 기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이상반응 즉시 진료”

유은혜 “학생들에게 불이익 없게 충분한 정보 지원”

기 때문에 예약률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병관리청과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1·고2에 해당하는 16~17세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간이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초6~중3 연령대인 12~15세 소아·청소년은 오는 18일부터 예약 후 11월 1일부터 4주간 접종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예약률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

된 고3의 경우 고교 교직원과 함께 접종률을 집계해 공개할 바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지 않으며 학교 활동에서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챙겨 달라”고 했다.

그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보호자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백신접종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접종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서 방역기관과 협조 및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백신접종 후에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건강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이상반응 발생 시 안내된 대처요령에 따라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조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6일 등교를 대폭 확대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초·중학교 최대 3분의 2까지만 등교한다. 4단계에서도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 이후 한 달 간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1학기처럼 학교보다는 가족 및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학생들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감염이 46.9%로 가장 많고, 원인 미상이 21.8%, 학교를 통한 감염은 16.4%다.

유 부총리는 “전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77.4%에 이르고 접종 완료 비율도 53%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러한 흐름만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백신접종 완료 이후 코로나19 확진율이 감소해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급, 학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백신 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모두 12~17세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만 더 백신접종 추진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소아·청소년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접종후 이틀까지 출석 인정...학교밖 청소년도 접종 가능

5일 오후 8시부터 16~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는 12~15세 소아·청소년 예약이 실시된다. 정부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휴교 등 학업 피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소아·청소년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우려와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답변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자료에 근거한다.



### 고3 감염 98.5% 예방... “미접종 불이익은 없어”

**-소아·청소년에게도 백신이 효과적인가**

의 불이익은 없다.”

**-미성년자의 접종 시행 동의를 서를 작성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관계 법령상 친권자, 후견인뿐만 아니라 아동에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에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포함된다.”

**-접종시기가 학교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백신 접종에 따른 결석 및 지필평가 미응시는 어떻게 처리되나**

“고3 접종부터 시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후 출석 인정 및 결석 허용 등 조치가 동일하게 시행되며, 기본적으로 백신접종 시 학사 운영 및 출결·평가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 문의하기 바란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학교 밖 청소년) 접종이 가능한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004년~2009년인 만 12세 이상의 소아·청소년 모두 해당된다.”

**-소아·청소년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해도 되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며, 접종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비롯해 학교에서

변경하면 된다. 백신 배송을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예진 결과에 따라 접종하지 못한 경우, 언제 접종이 가능한가**

“예진 결과에 따라 접종이 연기된 대상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조정 가능한 일자, 시간대를 확인해 예방접종 기간 내로 일정을 재예약해야 한다.”

**-1차 접종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전학 등)를 가게 된 경우, 변경된 지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가**

“1차 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2차 접종이 어려워 접종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접종일 2일전까지 연락하여 접종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허가된 접종간격 범위 내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여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소아·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12~15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은 이상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상반응은 신체가 백신에 반응 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일 이내에 소실되며,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활동이 가능하다.”

<b>호남신문</b> www.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b>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b>
<b>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유통정책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된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